

시론

이재명 정부 1년, 광주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



김민남 前 청와대 행정관

지난 6월25일,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전남 시·도민을 직접 만나 취임 후 첫 타운홀미팅을 가졌다. 울산에 이어 두 번째 지역 방문이다.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 내용을 시민과 언론에 전면 공개하며 투명한 국정 운영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묵은 지역 핵심 과제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고, 대통령의 약속대로 대통령실이 주도해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성과도 있다. 반면 사전 의제 조율 부족과 급박한 행사 준비로 인해 행정적·정책적 완성도 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지방정부의 사전 준비 미흡과 역량 부족도 드러난 자리였다.

이재명 대통령 '광주·전남 타운홀미팅' 이후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대통령과 함께한 타운홀미팅을 두고, 중요한 현안과제는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거나 먼저 앞서 시행했던 울산과 비교해 말로만 하고 끝났던지, 광주시장과 전남 지사의 경우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지방정부를 이끄는 수장으로 평소 행정을 꿰고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대통령의 토론방식이 단체장들을 다그치는 모습으로 비쳐 다소 아쉬웠다는 등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내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지하철 공사 등 광주시의 고질적인 현안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시민단체의 혹독한 평가로 본 광주시정 3년, 문화경제부시정 인사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 엇박자가 났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두 달째 되고, 광주·전남 타운홀미팅 이후 한 달이 돼가도록 아직 시시비비와 갈등은 가시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 초 강력한 권한을 통해 지역 핵심 현안을 풀어야 하지만 속 시원하게 해결된 건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광주는 언제까지 지역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돼야 하는가? 무엇이 중헌다?

새정부 특수를 놓친 광주시

큰 틀에서 보면 광주시가 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초기 특수를 누리는 게 아니라 놓치고 있다. 광주 의 입장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째 되지만,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희망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만든 새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혜택을 누리기는커녕 이점을 살려나

가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광주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

광주는 민간·군 공항 이전,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지하철 공사의 조기 완공, 원활한 복합쇼핑몰 추진,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영산강 100리길·Y-프로젝트, 전방·일선방직 부지 개발, 최근 발생한 금호타이어 문제 등 각종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 많다. 광주는 이런 문제들에 더욱 적극적으로어야 한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광주의 특수다. "우는 아이에 젖 준다"는 속담도 있다. 그동안 보수 정권과 윤석열 정부에서 차별받거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각종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좋은 기회로 잘 활용하자. 그러기 위해선 강 시장은 올해 서울 상주시간을 늘려 좀 더 중앙(대통령실·정부·국회)에 집중하면 좋겠다.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시민 지지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이라도 시민 속으로 뛰어들어 민심을 얻는다면, 앞으로 광주 시장 운영도 원만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배운듯 격이 없고, 오픈된 시민들과의 순화 타운홀미팅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아직 남아있는 시장 임기는 결코 짧지 않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시정에 매진한다면, 광주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여 유의미한 민선8기를 잘 마무리할 것으로 본다.

社說

최우선 국정과제 RE100 국가산단 호남이 최적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5급 신입 관리자 과정 특강을 통해 전남·광주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재생에너지를 써게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공약했다. 새 정부가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특정돼 전국에서 주목받았다. 후보지로 지목된 서남권이 향후 RE100 산단으로 지정 시 전기료 할인, 규제 제로 등 파격적 인센티브로 에너지수도 정사진이 본격화된다.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AI(인공지능) 슈퍼클러스터 허브 사업, 2030년까지 연간 1조원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에도 속도가 붙는다. 기대가 커지는 이유다. 풍부한 발전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도내 전력 자급률은 21.34%로 울산시(22.1%)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66GW로 전국 34GW의 19%를 점유하고 있다. 전력 계통 포화로 신규 발전 허가까지 제한된 상태다.

전력 수요가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mismatch 상황에서 전진기지 역할이 가능한 것이다. 에너지

지 대전환을 전남이 선도할 태세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RE100 산단 육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해서 지금까지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과 과정에서 소외돼 낙후된 곳부터 살려내야 한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지원정책과 발맞춰 유수의 대기업이 모이고 청년이 물리는 제반 여건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규제,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100%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업의 청정 에너지 수요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특별법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확정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 역량 배분에서 지방에 대한 균형적 시각보다 지방에 대한 추가적인 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100 산업단지 포함 미래 에너지 신도시의 성공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겠다.

글로벌 RE100 실현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쟁력을 제고하길 바란다. 준비 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구소멸 극복에 기여할 호재다. 지역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획기적인 전기를 맞았다.

광주시 행정 난맥상 성토장 된 시의회 시정질문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임미란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단순한 공사 지연을 넘어 사업 계획 수립과 진행 전반의 총체적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은 또 "총사업비가 당초 대비 80% 이상 증가해 지방비와 지방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1단계의 경우 압반과 설계도면과 다른 매설물이 다수 발견되는 복합적 문제로 공정이 지연되고 있고, 2단계 공사 구간은 7·10공구 구간이 무려 5차례에 걸쳐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면서 차일피일이다. 효천지구를 연결하는 3단계는 착공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박수기 의원은 "하남산업단지 지하수에서 신장암 및 중금속이 검출되는 1급 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각각 최대 46배, 28배 초과 검출됐다"며 광주시와 광산구가 2년 넘게 침묵하며 시민들을 위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수치권 관리 계획에 따라 지하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나 지하수는 생활밀착형 자원으로 간주돼 자치구에서 관리한다고 해명했지만 위급성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광주시 관하여, 구청의 사무나로 시간을 보내고 회피할

게 아니라는 질책을 받았다.

당초부터 시정질의를 앞두고 다수의 현안 추진에 대한 난맥상이 돌출됐던 터라 예고는 됐지만 무사안일 행정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늦춰지면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교통 정책의 혼선도 예상된다. 점에 시민들의 근심도 커보인다. 기준치 보다 수백배 초과된 광주 최대 하남산단의 1급 발암물질도 그렇고 2년이 지나도록 쉬쉬 해온 사실까지 충격을 더하고 있다. 사전에 다각도로 예측하지 못했고, 사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민선8기 4년차의 시작한 7월 정례회에서도 치열했던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무색해지는 모습이다.

강기정 시장과 공직자들은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광주, 더욱 풍요롭게 잘 사는 광주를 위해 의기투합했다. 민·군 통합공항 이전, 복합쇼핑몰 유치, AI(인공지능) 2단계 사업,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등 미래 먹거리들이 적적 추진돼야 할 것이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원칙의 길로 꿋꿋이 가겠다고 했다. 당면한 난국 타개를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의료칼럼



곽희호 목포청연한방병원장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이었다면 현대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 고민이다.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하며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기능성 소화장애(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order)'란 소화기 불편감을 호소하는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병적인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소화장애가 위장이나 십이지장에서 발생하면 '기능성 소화불량(Functional dyspepsia)'이라 하며, 대장에서 발생하면 '과민성 대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이라 부른다. 이에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 살펴본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전체 소화불량의 60%를 차지하며, 일반인에서 15% 가량 발견될 정도로 빈도가 높은 질환이다. 원인은 정확히 규정되지 않았지만 위산과다 또는 헬리코박터 감염으로 인한 위염, 위 저부의 이완 장애와 스트레스를 포함한 정서적 요인이 있다.

소화가 안돼 불편한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윗배가 아프거나 속이 더부룩하게 불편하고, 소화가 잘 안되며 트림이 자주 나거나 구역감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소화불량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불편감은 식후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진단은 병력청취, 위내시경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이뤄진다. 병력청취로 소화불량의 증상, 식후 불편감, 조기 포만감, 명치부위 통증 등을 확인한다. 내시경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위장이나 간담의 기질적인 질환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진단할 수 있다.

치료는 원인을 없애는 것보다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방치료에서는 약물치료, 한방치료에서는 침구치료와 한약치료를 시술하며 모든 치료에는 생활습관 교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양방치료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에 처방하는 약물의 종류는 다양해 환자의 증상에 맞게 선택적인 처방이 이뤄진다. 식후 불편감이거나 더부룩함이 심하면 위장관운동 촉진제를, 속쓰림이나 명치 통증이 있다면 제산제나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를 주로 처방한다. 이외에도 가스 제거제, 헬리코박터균 제거제 등을 활용한다.

침구치료는 기능성 소화불량의 증상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명치와 배꼽을 이은 선의 중점에 위치한 중완(中腕)혈은 비위를 편하게 하며 노폐물인 담음을 제거해 위장질환에 도움이 된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한 함곡(合谷)혈과 무릎뼈에서 8~9cm 아래에 정강이뼈 바깥쪽 힘줄 안쪽에 위치한 족三里(足三里)혈은 더부룩한 소화불량 증상을 즉각적으로 개선해준다.

한약치료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처방한다. 더부룩함 위주의 소화불량을 호소하면 향사평위산(香砂平胃散), 속쓰림을 동반하며 가슴이 답답하면 반하사심탕(半夏瀉心湯), 소화불량으로 식욕이 저하돼 피로하면 육군자탕(六君子湯)을 다용한다.

생활습관 교정에서는 식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식사시간을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해야 소화가 적음에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밀가루나 기름진 음식 등의 자극적인 음식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유당불내증을 가진 환자라면 유제품을 제한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추가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소화기의 기질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기능적인 불편감은 장기간 지속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건강한 소화와 함께 즐거운 삶이 되길 바란다.

독자투고



이종훈

스토킹은 위키백과에서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에서 파생돼 명사화된 용어로 괴이적근행위라고도 하며, 타인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20일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라 '스토킹'이 법률상 공식 용어로 도입됐고, 처벌·제재의 대상으로 명문화됐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6가지 행위를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범죄' 신속한 신고가 최선의 방법

말한다. 첫째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둘째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셋째 상대방에게 우편·전화·팩스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넷째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둑맞게 하거나 주거나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다섯째 상대방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여섯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일곱째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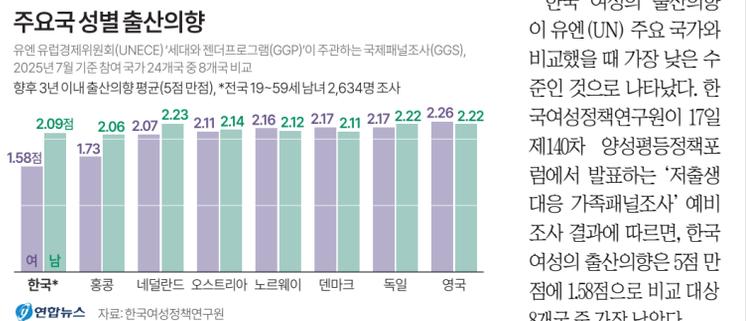
여기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회성으로는 안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과 신체적 안전, 심리적 건강 등을 침해하고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되고 지속되는 범죄이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만이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해 피해를 당할 시 적극적으로 112신고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완도경찰서 읍내지구대>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한국 여성의 출산의향이 유엔(UN)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일 제14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발표하는 '저출생 대응 가족패널조사'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출산의향은 5점 만점에 1.58점으로 비교 대상 8개국 중 가장 낮았다. 반면 한국 남성의 출산의향은 2.09점으로 여성보다 0.51점이나 높았다. 네덜란드(여성 2.07점, 남성 2.23점), 독일(2.17점, 2.22점), 홍콩(1.73점, 2.06점), 덴마크(2.17점, 2.11점), 영국(2.26점, 2.22점), 노르웨이(2.16점, 2.12점), 오스트리아(2.11점, 2.14점)와 비교하면, 남녀간 출산의향 격차가 가장 컸다. 여성의 출산의향은 비교대상 국가중 압도적으로 낮은 반면, 남성의 출산의향은 유사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가장 높은 편이지만,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가장 낮았다. '여성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도는 한국이 여성 2.93점, 남성 3.08점으로 홍콩(2.45점, 2.43점), 노르웨이(1.61점, 1.74점), 네덜란드(1.35점, 1.47점)보다 높았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